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Day1 현대시 해설지]

**작품 선정 및 출제 의도

본 문항 세트는 현대시 두 편, (가) 최두석 시인의 「성애꽃」과 (나) 윤동주 시인의 「길」을 제재로 하여 학생들의 종합적인 현대시 감상 및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 (가) 최두석, 「성애꽃」**은 일상적 소재인 '성애꽃'을 통해 타인의 삶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연민,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미적 가치를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섬세한 정서 파악 능력과 시적 이미지 해석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나) 윤동주, 「길」**은 자기 성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상실의 아픔을 겪으며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깊이 있게 드러냅니다. 학생들의 상징적 시어 이해 능력과 화자의 심리 및 태도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작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과 공감을 다룬 작품((가))과 주체의 내면적 탐구를 다룬 작품((나))을 대비적으로 감상하고, 다양한 표현 방식과 주제 의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습니다.

1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가) 「성애꽃」의 화자는 성애꽃을 통해 타인의 삶의 애환을 느끼고 연민하며 마지막에는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라고 하며 현실적 아픔을 드러낸다. 이는 현실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절대적 평온을 얻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나) 「길」의 화자는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짓다", "부끄럽게 푸릅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상실감과 고뇌를 지속하며 '잃은 것을 찾는' 과정을 삶으로 받아들인다. 이 역시 절대적 평온을 얻은 상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화자가 절대적 평온을 얻는 과정을 보인다는 진술은 명백히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성애꽃'을 "찬란한 치장"(시각, 비유), "선연히 피는"(시각) 등으로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전람회에 온 듯"(비유)하다고 표현하며, 그 아름다움에 "취한다"고 하여 화자의 감흥을 자아낸다. 이는 적절한 설명이다.

② (나)는 '길', '돌담'이라는 시적 공간을 배경으로, 화자가 "길에 나아갑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등의 행위를 하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와 같은 내면을 고백함으로써 성찰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는 적절한 설명이다.

③ (가)는 성애꽃을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등 관찰과 상상을 통해,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 까닭입니다"와 같이 고백적 진술과 사유를 통해 주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는 각 작품의 주된 표현 방식에 대한 적절한 비교 설명이다.

④ (가)는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에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등에서 시적 화자 '나'가 표면에 등장하여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사유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두 작품 모두에 해당하는 적절한 설명이다.

2번문항.

정답: ①

해설: ① ⑥ '입김과 숨결이'는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것으로, 이들의 삶의 흔적이며, 때로는 고단함("막막한 한숨")을 때로는 열정("정열의 숨결")을 담고 있다. 이것이 성애꽃이라는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을 피워 내는 근원이 되며, 화자는 이를 통해 타인의 삶을 느끼고 연민하며("푸석한 얼굴", "친구여"), 동시에 그 아름다움에 "취한다". 따라서 ④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이 응축된 결정체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만들어낸 성애꽃이라는 미적 대상을 통해 화자에게 연민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⑥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는 화자가 현재 살아가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지, 이미 상실감을 극복한 '결과'를 명시한다거나, 그것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 그 자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찾는 행위가 현재의 삶의 방식이자 의미임을 강조한다.

③ ④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그 이면에 있는 삶의 애환에 대한 연민이 복합된 것이지, 덧없이 사라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안타까움'이 주된 정서는 아니다. ⑤는 삶의 이유를 찾는 과정이지, 애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④는 타인들의 흔적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이며, 이를 통해 화자는 타인의 삶을 사유하고 공감한다. 이것을 화자 '개인의 내밀한 경험을 통해 얻은 미적 쾌감'으로만 한정하기는 어렵다. ⑤는 상실로 인한 자아 탐색 과정이며, 이것이 '외부 세계와의 단절로 인한 실존적 불안감'만을 상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④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사람들의 흔적이기에 현재 관찰되는 대상이며, 화자의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환기하는 매개체'로 한정하기 어렵다. ⑤는 현재 '내가 사는 것'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지, 미래에 대한 '다짐'을 직접적으로 함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 ‘(내가) 사는 것은’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와 직접 연결되어, 현재 화자의 삶의 의미가 ‘잃은 것을 찾는 행위’와 동일시됨을 나타낸다. 이는 과거의 상실 상태에 기인한 현재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지, 이 행위와 ‘분리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구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 ‘찬란한’은 ‘엄동 혹한’이라는 차갑고 어두운 배경과 대비를 이루며, 새벽 버스 차창에 나타난 성에꽃의 아름다움이 화자에게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하고 놀랍게 인식되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② ㉢ ‘섬세하고도’는 성에꽃의 외양(‘꽃이파리 하나’)과 그것이 지닌 차가운 속성을 함께 언급하며, 이 아름다움이 단순한 외양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라는 미세한 요소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③ ㉤ ‘덜컹거리는’은 버스 창 의 물리적 상태를 묘사하지만, 이 창에 ‘푸석한 얼굴’이 어리고 곧바로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라는 구절로 이어지면서, 불안정한 현실, 고단한 삶의 모습, 친구의 어려운 상황 등을 연상시키며 암시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④ ㉥ ‘나아갑니다’는 화자가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상실의 대상이나 방향이 모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더듬으며 길을 나서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의 시작을 나타낸다.

[4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나)에서 화자가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을 나서는 모습은 <보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상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행위의 시작이다. 시 전체의 내용이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로 귀결되는 것을 볼 때, 이 행위는 ‘상실의 아픔을 망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찾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구성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상실의 아픔을 망각하고’라는 진술은 <보기> 및 작품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의 진술 부분(“타인의 삶에 대한 피상적 관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며”)은 ‘성에꽃 한 잎 지우고 / 이마를 대고 본다’는 행위를 통해 더 깊이 교감하려는 모습으로 볼 때 타당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나)에 대한 설명이 명백히 틀렸으므로 전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성에꽃을 ‘전람회에 온 듯’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취한다’고 표현한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시의 일상적 공간에서 타인의 삶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화자의 태도를 잘 보여

준다.

② (나)에서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라는 시간의 순환적 표현은, <보기>에서 언급된 “상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이 쉽게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고투의 시간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이마를 대고 본다’는 행위는 성에꽃이라는 매개를 통해 타인의 삶에 더 깊이 교감하려는 태도로, <보기>의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며”와 연결된다. (나)의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는 <보기>의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 고뇌하며”의 관점에서, 순수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자기반성적 부끄러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가)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는 개인적 관계의 단절과 그로 인한 아픔을 보여주며, 이는 <보기>의 “자신의 삶과 관계를 반추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연대감을 모색한다”는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 (나)의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요’는 <보기>의 “궁극적인 자아 인식에 도달하고자”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자아와 분리된 본질적 자아의 존재를 상정하고 그것을 찾으려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Day2 고전시가]

[5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가)에서 ‘대마도’, ‘동래 울산’ 등의 지명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화자가 특정 공간들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그에 따른 정서 변화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나 적의 침략 경로 등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을 나타내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화자는 주로 배 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여러 지명의 순차적 제시를 통해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를 그린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허리 위로 불작시면 투구 갑옷 위엄이나 / 마음 속을 굽어보니 흥계(興計) 가득 못 믿으리”와 같이, 대상(왜놈)의 겉모습과 속마음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대구의 방식을 통해 그 이중적인 면모(겉으로는 위엄 있어 보이나 속으로는 흥계를 품고 있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너희 또한 그러하면 천벌(天罰) 받아 망하리라”는 구절은, 왜놈들의 간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가정) 그들이 천벌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결과(전망)를 예언하는 내용이다.

③ (가)의 후반부(“조총(鳥銃)이며 장편전(長片箭)들 내 손으로 만들었나 / 이 배 저 배 타는 수졸(水卒) 내 한 몸이 다 먹이나 / 삼시 세때 밥 먹이며 봄옷 여름옷 해 입히랴 / 해마다 나라 공물 이 배에다 실어내니 / 저 많은 군량미를 나 혼자 당

할쏘냐”)에서는 설의적 표현(‘~냐’, ‘~랴’, ‘~쏘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책임과 어려운 처지에 대한 한탄과 부담감을 강조하고 있다.

④ “진시황 보낸 방사(方士) 동남동녀 어디 가며 / 서불(徐市)이 데려간 아희놈들 몇 리 가서 장성하리”와 같이 과거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일본의 간사함과 연결 지으며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6번문항]

정답: ③
해설: ③ (가)에서 ㉠ ‘일장검’은 “칠팔 년 묵은 원한 일장검을 갈게 하고 / 구시월 쌓인 분노 북을 치며 외치거늘”에서 드러나듯, 왜적이라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 싸우려는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상징한다. (나)에서 ㉡ ‘안주’는 알미운 개를 “끓여 삶아 안주할까”라고 언급하는 부분으로, 개의 행동으로 인한 일상에서의 불쾌감을 극단적이고 과장된 상상을 통해 해학적으로 처리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양쪽 설명 모두 타당하다.

오답 풀이: ① ㉠은 구국의 신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반드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심정만을 '집약적'으로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학 속에는 애증과 같은 복합적 감정이 담길 수 있으며, '안주'는 그러한 감정의 과장된 표현이다.

② ㉠은 과거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다. ㉡은 갈등 상황의 해소를 바라기보다는 현재의 불만을 해학적으로 토로하는 데 가깝다

. ④ ㉠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무력)이 될 수 있으나, ㉡(안주)은 화자가 실제로 개를 안주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심리적 불만을 과장되게 표출하는 방식이다.

⑤ ㉠은 결연한 의지를, ㉡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므로, 두 시의 화자가 현재 느끼는 ‘만족감’과는 거리가 멀다.

[7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보기>는 공적 세계의 화자가 공동체적 규범이나 이념에 ‘순응’하거나 때로는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가) 「선상탄」 발췌 부분에서 화자는 왜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 (“저 왜놈아 네 하는 짓 보아 하니 예로부터 간사쿠냐”)과 함께 자신의 어려운 처지(“늙고 병든 몸”, “저 많은 군량미를 나 혼자 당할쏘냐”)에서 비롯된 “설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개심과 설움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려는 ‘보국 충정’이라는 공적 세계의 규범과 이념에 충실히 ‘순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받드는 충(忠)이라는 공적 규범 자체에 대해 회의하거나 대립하는 ‘긴장 관계’를 형

성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규범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한탄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적개심과 설움이 공적 세계의 규범에 대한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핵심이라고 보는 것은 <보기>의 개념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이며, 작품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늙고 병든 몸”이라는 개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국 충정”을 외치며 왜적에 맞서려 한다. 이는 <보기>에서 제시된, 공적 세계의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적 이념(충성)에 ‘순응’하며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려는 자세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나)의 화자가 알미운 개에 대해 “끓여 삶아 안주할까”라고 말하는 것은, 일상적인 불만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극단적이고 과장된 상상을 통한 반응이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사적 세계의 불만을 '예기치 않은 반응'을 통해 해학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③ (가)의 화자는 “보국 충정”이라는 공적 규범에 충실히 따르면서도(“칼을 차고 배에 오르니”), “이 내 설움 들어 보소”, “저 많은 군량미를 나 혼자 당할쏘냐”와 같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개인적 어려움과 부담감을 토로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공적 세계의 과제에 직면하여 공동체적 규범에 순응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개인적 고뇌'로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개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끼지만, 이를 심각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동네 웃음 되리로다”라며 해학적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보편적 정서에 기대'면서도 체념과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는 '개성적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8번문항]

정답: ③
해설: ③ ㉠(“나는 아내에게서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두는 기묘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며 일종의 허전한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은 주인공 '나'가 돈을 모으는 '기묘한 버릇'이라는 반복적, 습관적 행위와 함께, 그 행위를 통해 느끼는 '허전한 만족감'이라는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심리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의 반복적 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복합적 심리를 요약적으로 압축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아내는 이런 나를 위하여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그 가는 곳과 돌아올 시간을 미리 알려 주어 나의 초조를 최소한으로 줄여 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은 아내의 행위에 대한 ‘나’의 추측성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지, 서술자가 아내의 행위에 대해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것 같았다’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한다.

② ㉡(“-이 돈으로 맛있는 것 사 먹고, 외출도 좀 하고 그러

세요. 외투도 한 벌 해 입으시고요.”)은 아내의 발화를 직접 인용한 것은 맞으나, 그 발화에 담긴 이면적 의도를 서술자가 분석적으로 해설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 뒤에 “아내는 틀림없이 내가 낮 동안 외출하여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눈치였다.”는 ‘나’의 추측이 이어질 뿐이다.

④ ㉠(“어느덧 가을이 깊어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내에게서 돈을 받아 생활하며 이 기묘한 방구석 철학에 몰두한 지 꼭 일 년이 되는 가을날 오후였다.”)은 특정 시간적 배경(일 년이 되는 가을날 오후)을 구체화하는 것은 맞지만, 이 시점이 인물의 ‘내적 성숙이 완료되는 결정적 계기’임을 분명히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후에도 ‘나’의 의식은 여전히 아내 문제에 얽매어 있고, 고독 철학에 대한 확신과 무기력이 공존하는 등 성숙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힘든 모습이 이어진다.

⑤ ㉡(“아내의 부재가 만들어 내는 그 기묘한 자유와 불안이 나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이한 도착이었다.”)은 인물의 상태에 대한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이자 논평에 가깝다. 인식의 전환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미 도달한 특정 상태를 명명하는 것이며, 여러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점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묘한 자유와 불안’, ‘기이한 도착’ 등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다.

[9번문항]

정답: ②

해설: ② 작품 속에서 ‘아내의 돈’은 주인공 ‘나’가 아무런 생산 활동 없이 방 안에 머무르며 아내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기생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이다. ‘나’는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의혹을 품으면서도 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며, 돈을 매개로 아내와의 기형적 관계가 지속된다. 이 과정에서 ‘나’는 더욱더 현실과 유리된 채 자신만의 공상과 사색에 빠져들고, 아내에 대한 의심과 불안, 자괴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 고립과 내면 분열이 심화된다. 따라서 ‘아내의 돈’은 왜곡된 관계와 기생적 삶의 조건이자, 주인공의 심리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아내의 돈’은 주인공에게 현재의 무기력하고 기형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소재이지, 과거의 순수성을 회상하게 하거나 자아 정체성 탐색의 긍정적 여정을 자극하는 매개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③ 주인공 ‘나’는 아내가 주는 돈에 의존하며 무기력한 생활을 지속할 뿐, 이를 계기로 사회적 존재로 각성하거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돈을 받지 않으려는 시도는 쉽게 좌절된다.

④ ‘아내의 돈’은 두 사람 사이의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를

상징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극복해야 할 명시적인 ‘장애물’로 설정되어 인물의 성숙을 이끌어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계는 지속적으로 왜곡된 채 유지된다.

⑤ 주인공 ‘나’는 돈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물질만능주의적 세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거나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저항 의식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그의 관심은 주로 자신과 아내의 기묘한 관계 및 자신의 내면 상태에 머물러 있다.

[10번문항]

정답: ③

해설: ③ 윗글의 후반부에서 ‘나’는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는 현상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혹을 키워가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고독 철학’(또는 ‘아내 존재론’, ‘세계 인식 방법론’)이 현실과 유리되었음을 깨닫고 이를 ‘포기하게 된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지문에서는 “그 대신 나는 이제 나 자신의 고독 철학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한 신념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서술한 후, 아내의 외출이라는 현상을 “변명 삼아 나의 방구석 철학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거나”라고 하여 자신의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중략) 이후 부분에서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의 이 비정상적인 존재 상태를 합리화하고... 나의 세계 인식 방법론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여, ‘나’가 자신의 기형적 상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독특한 이론을 구축함을 알 수 있다.

② 지문 전반에 걸쳐 ‘나’는 아내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그 돈의 출처에 대한 불쾌한 의혹은 나를 늘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내에게 돈을 얻어 쓰는 것은 물론 부끄러운 노릇이다.”라고 하여 돈에 대한 불편함과 의존 상태를 드러낸다.

④ 지문의 도입부에서 ‘나’는 자신의 방을 “요람과 같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으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더 방안에 고립시키는 올가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알 수 없는 갑갑증에 시달리곤 했다” 등을 통해 고립감과 답답함을 느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⑤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내의 부재가 만들어 내는 그 기묘한 자유와 불안이 나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이한 도착이었다.”)을 통해 ‘나’가 아내의 부재로 인한 복잡한 감정 속에 일상이 지배당하는 도착적 상태에 이르렀

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1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보기>는 ‘나’의 ‘날개’에 대한 갈망을 “현실에서의 탈출과 새로운 존재로의 비상을 꿈꾸는 것”으로 설명한다. 지문의 후반부에서 ‘나’는 아내의 잦은 외출을 계기로 “아내의 부재를 이용하여 금지된 외출을 감행하려는 은밀한 욕망을 키우기도 하였다”라고 서술된다. 그러나 이러한 ‘은밀한 욕망’은 아내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이고 일탈적인 시도일 수는 있으나, <보기>에서 언급된 ‘날개’의 갈망이 아내로부터의 경제적·심리적 ‘독립’을 이루고 ‘새로운 존재로 비상’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적인 준비’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여전히 아내와의 비정상적인 관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실 도피나 도착적인 욕망 표출로 볼 수 있으며, ‘나’의 근본적인 무기력함이나 의존성에서 벗어난 능동적인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보기>의 내용을 작품에 적용하여 감상할 때, ‘나’의 행동의 의미를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약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나’가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구체적인 실체나 배경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수동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② 지문의 두 번째 문단에서 ‘나’는 아내가 외출하고 없는 동안 “거의 방에 틀어박혀 아내가 남기고 간 돈을 세거나,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궁리하거나, 아니면 아내의 밤 외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상상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나’가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자신만의 관념 세계(궁리, 상상)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③ 지문의 세 번째 문단에서 ‘나’는 외출 시도 후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험란했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나의 유일한 안식처는 역시 나의 방뿐이었다”라고 말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소외된’ 지식인이 외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침잠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지문의 (중략) 이후 첫 번째 문단에서 ‘나’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존재 상태를 합리화하고 [...] 기만적인 안정감을 찾으려는 듯이” 자신만의 “세계 인식 방법론”을 발전시킨다. 이는 <보기>의 ‘무기력한 지식인’이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관념의 세계 속에서 나름의 논리를 구축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12번문항]

정답: ④

해설: ④ ㉠(“하늘의 뜻이라면 세 번의 칼날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니 시험하여 보소서.”)에 대한 임금의 직접적인 반응은 “요망한 놈이 죽을 때가 임박하니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네 말이 과연 그러한지 시험해 보리라.”입니다. 이는 전우치의 말을 ‘해괴한 소리’로 여기며 그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그의 허풍을 증명하여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임금이 전우치의 제안에서 왕권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감지했을 수는 있으나, 그의 비범한 능력을 ‘인정하고’ 시험을 수용했다는 설명은 임금의 불신과 분노가 담긴 어조 및 이후 행동과 모순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풀이: ① ㉠(“잠깐 형을 멈추시오. 아뢰 말씀이 있나이다.”)은 임금이 참수를 명한 긴박한 상황에서 전우치가 즉각적인 형 집행을 지연시키고, 이어지는 ㉡의 특별한 제안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에 이어지는 전우치의 발언, 즉 ㉢의 내용은 자신이 천상의 존재이거나 천명에 따라 움직이는 특별한 존재임을 암시하며(“하늘의 뜻이라면...”), 이를 통해 인간적 권력자인 임금의 처분 능력(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넘어서는 자신의 초월적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③ ㉠에서 전우치가 ‘시험하여 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도술이 세 번의 칼날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는 임금의 처형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⑤ ㉢의 예고대로 전우치가 도술로 사라진 초현실적 현상을 목격한 후에도, 임금이 그를 다시 체포하라고 명하는 것은 통치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전우치의 행위에 대해 실추된 왕의 권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강한 반발이자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13번 해설]

정답: ④

해설: ④ 윗글에서 전우치는 임금 앞에서 국문을 받을 때 자신의 텍스트박스[도술(道術)]을 언급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다고 말하고, 이후 처형 위기에서 실제로 도술을 부려 위기를 벗어나고 임금과 조정을 회롱하며 궁궐을 이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지문 말미에는 이후에도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데 도술을 사용했음이 언급됩니다. 이는 ‘도술’이 전우치에게 단순한 재주를 넘어, 봉건적 질서의 억압이나 지배층의 권위에 맞서 도전하고, 그들의 무능이나 부패를 조롱하며 응징하는 핵심적인 능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오답 풀이: ① 임금은 전우치의 ‘도술’을 목격한 후 그를 ‘요망한 놈’으로 규정하며 더욱 분노할 뿐, 그의 충성심을 확인하거나 중요한 직책에 등용하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② 전우치는 ‘도술’을 부렸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 국문을 받고 처형 위기에 처한 것이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를 벗기 위해 도술을 사용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③ 전우치는 도술을 사용한 이유로 “백성을 구제코자” 하였고 언급하며, 지문 말미에도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빈민을 구제”했다고 하여 그의 도술 사용이 사적인 이익 추구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조정 대신들의 우려나 반발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으며, 전우치는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거나 은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4번 해설]

정답: ②

해설: ② 전우치는 자신을 참수하려는 임금의 명령 앞에서 ㉠, ㉡과 같은 발언을 통해 자신의 비범함을 암시하고(“하늘의 뜻이라면 세 번의 칼날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니”), 실제로 도술을 통해 세 번의 칼날에도 죽지 않고 쥔 인형을 대신 남겨둠으로써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후 남대문 문루 위에서 임금과 조정을 비웃고, 학으로 변하여 바람을 일으켜 궁궐을 이수라장으로 만드는 등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절대 권력자인 임금의 권위를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며, 자신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협적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아가 상대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그의 핵심적인 위기 대응 방식입니다.

오답 풀이: ① 전우치는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잠깐 형을 멈추시오”, “시험하여 보소서”), 그의 행동은 임금의 권위에 순응하기보다는 도전하고 조롱하

는 것에 가깝습니다. 결백을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전우치는 위기의 심각성을 과장하거나 임금의 동정심에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기묘한 제안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 합니다.

④ 전우치는 처음부터 ‘가짜 전우치’를 내세워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지 않았으며(앞부분의 줄거리 참고, 본 지문에서는 국문 받는 전우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시되지 않으나 그의 행동은 초월적임), 위기 극복 방식은 ‘강력한 물리력’이 아닌 도술이라는 신이한 능력에 의존합니다.

⑤ 윗글에서 전우치는 제삼자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다른 인물과 연대하여 위협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개인의 비범한 능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주도합니다.

[15번 해설]

정답: ⑤

해설: ⑤ <보기>는 주인공의 능력이 때로는 ‘개인적인 복수나 장난기 어린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영웅이 ‘민중의 바람을 대변’하거나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면모도 지닌다고 설명한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 “이후 전우치는 팔도를 유람하며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등 많은 이적을 남기었다고 하더라.”라는 서술은 전우치의 능력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불의를 응징하는 공적인 역할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민중의 바람을 대변’하는 영웅의 모습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서술이 전우치가 자신의 능력을 ‘오직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만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는 진술은 명백히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의 근거가 된다.

오답 풀이: ① 전우치가 절대 권력자인 임금 앞에서 자신의 도술 사용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며(“백성을 구제코자...”) 당당하게 발언하는 모습은, 비록 변명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임금의 분노를 사고 처형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기>의 ‘지배층에 맞서는’ 영웅의 면모가 위축되지 않고 발현된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② 전우치가 세 번의 칼날에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유유히 사라지며 쥔 인형을 대신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의 초월적인 도술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영웅의 면모가 사실성을 넘어 ‘과장되거나 신화적으로 그려지는’ 고전 영웅 소설의 특징적인 양상에 해당한다.

③ 전우치가 처형 위기를 벗어난 후 남대문 문루 위에서 임금과 조정을 향해 손짓하며 웃고, 푸른 학으로 변하여 바람을 일

으키는 모습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도술로 벗어나는 그의 ‘기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임금을 희롱하고 궁궐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통쾌함을 주지만 다소 ‘장난기 어린 행동’으로도 비칠 수 있는 ‘해학’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④ 윗글에 제시된 전우치의 주요 행적은 임금을 속이고, 처형장에서 탈출하며, 궁궐에 소동을 일으키는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행과 임금에 대한 희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 전개는 독자에게 흥미와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보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단순한 오락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쳐 작품의 ‘주제 의식의 깊이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16번 문항]

정답: ③

해설: ③ (가)에서 화자 ‘나’는 자신이 처한 궁핍하고 외로운 상황(“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과 자신의 내면(“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을 관찰하며, 결국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성찰적 태도를 보인다. (나)에서 화자 ‘나’는 고향의 다양한 풍경과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들(구체적 대상/상황)을 감각적으로 떠올리며,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곳이 지닌 의미를 성찰한다. (다)에서 글쓴이 ‘거사’는 ‘흐린 거울’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사용하는 자신의 행위와 그 이유에 대한 손님과의 문답을 통해, 사물의 가치와 인간의 자기 인식 방식에 대한 독창적인 성찰을 드러낸다. 이처럼 세 작품 모두 관찰한 대상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화자 또는 글쓴이의 성찰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현실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내면적 다짐이 중심이며, 현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고발’이나 ‘비판적 시각’이 주된 태도는 아니다.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함이 주된 정서이며, (다)는 통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있으나 이를 ‘현실의 모순 고발’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든 작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그리고 있으나, 과거의 ‘특정 사건’을 회상하며 현재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방식은 아니다. (나)는 과거를 회상하나, 이것이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비극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부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는 특정 역사적 사건과 무관하다.

④ (가)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성찰적인 어조이며, (다) 또한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어조이다. (나)는 후렴구에서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지만, 세 작품 모두에서 영탄적 어조가 대상에 대한 ‘격정’을 표출하는 주된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⑤ (나)는 향토적 정서를 바탕으로 유년 시절을 포함한 과거 고향의 삶을 동경하고 있다. (가)는 타향에서의 현재적 고통과 성찰이 중심이며, 유년 시절에 대한 직접적 동경은 아니다. (다)는 향토적 정서나 유년 시절 동경과는 거리가 멀다.

[17번 문항]

정답: ①

해설: ① (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모든 것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좁고 어두운 곳에서 눈을 맞으며 굳건히 서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한다. 이는 화자가 현실의 시련 속에서도 발견하고자 하는 내면의 위안이자, 삶에 대한 의지를 다잡게 하는 표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향수」에서 ‘그곳’은 각 연에 묘사된 정겹고 평화로운 과거의 장면들을 포괄하며, 화자가 각 연의 마지막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꿈에서도 잊지 못할 만큼 간절하고 절대적인 그리움의 대상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가)의 ‘갈매나무’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떠올리는 의지적 대상이지, 과거의 풍요로움을 상징하지 않는다. (나)의 ‘그곳’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정신적 공허함을 대변하는 공간이 아니다.

③ (가)의 ‘갈매나무’는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대상이지, 현실 도피나 소극적 안주와는 거리가 멀다. (나)의 ‘그곳’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공간이지, 미래의 재회를 기약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직접 제시되지 않는다.

④ (가)의 ‘갈매나무’는 화자에게 내적 의지를 환기하는 긍정적 대상이지,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다. (나)의 ‘그곳’은 따뜻하고 정겨운 그리움의 공간으로 그려지며,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고통의 공간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⑤ (가)의 ‘갈매나무’는 현실 대응 의지의 표상이지 초월적 세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나)의 ‘그곳’은 화자가 간절히 그리워하는 이상적 공간이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세속적 공간이 아니다.

[18번 문항]

정답: ④

해설: ④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켜김질하는 것이었다.”)에서 ‘켜김질하는 것’은 소가 먹은 음식을 되씹듯이, 화자가 자신의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곱씹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지속과 심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감정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바로 다음 문장에서 화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며 절망감을 드러낸다. (현대시 고난도선지원책 2: 정서의 복잡성 및 변화과정의 정확한 이해)

오답 풀이: ①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은 화자가 아내와 집이라는 핵심적인 생활 기반을 상실했음을 명시하고, 이어지는 내용(“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을 통해 가족과의 분리 및 현재의 유랑 상황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② ㉠(“바로 날도 저물어서, /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은 날이 저무는 시간적 배경과 함께 매서운 바람과 추위라는 혹독한 외부 환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이는 화자가 처한 어려운 현실과 그의 내면적 고립감 및 쓸쓸함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깐, / 한 방에 들어서 집을 붙이였다.”)은 화자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남의 집의 허름한 방에 임시로 거처(셋방)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준다. 이는 안정된 삶의 터전을 잃은 그의 불안정한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⑤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은 화자가 느끼는 극심한 슬픔, 어리석음, 부끄러움의 감정이 절정에 이른 상태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은 이러한 격한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진정되고, 마음속에 ‘외로운 생각’만이 남게 되는 상태로의 심리 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걱정적 상태에서 벗어나 대상을 보다 차분하게 사유할 수 있는 상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19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나)의 마지막 연에 제시된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은 고향집의 소박하고 다소 쇠락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이라는 묘사와 후렴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이러한 풍경마저도 따뜻하고 정겨운 그리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보기>에서도 이 시의 주된 정서를 ‘애절한 그리움’으로 설명하며, 고향을 ‘정서적 근원이자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라한 지붕’의 묘사가 화자가 미화된 과거 기억의 ‘허구성을 깨닫고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전환점’이라는 해석은, 작품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고향에 대한 절대적인 그리움의 정서 및 <보기>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화자는 고향의 모든 모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현대시 고난도선지원책 5: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 관계에 대한 비판적 거리 - 시적 세계의 미화 가능성 인지)

오답 풀이: ① (나)의 첫 연에 제시된 ‘넓은 벌’, ‘실개천’, ㉠ ‘얼룩백이 황소’ 등은 고향의 전원적 풍경을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암시)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낸 것이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고향의 모습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구체화한 것에 해당한다. ② (나)에서 각 연의 말미에 동일한 구절(“—그곳이 차마 꿈엔

들 잊힐 리야.”)이 반복되는 것은, 시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

고 운율을 형성하며, 고향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심화하는 후렴구의 기능을 한다. 이는 <보기>의 설명과 일치한다.

③ (나)의 셋째 연에서 화자는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 ‘파아란 하늘빛’을 그리워한다고 말한다. ‘흙’은 생명의 근원, ‘파아란 하늘빛’은 순수와 동경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이는 고향이 화자의 정서적 뿌리이자 그가 그리워하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임을 보여주며, <보기>의 설명과 연결된다.

④ (나)의 넷째 연에 묘사된 ‘어린 누이’와 ‘사철 밭 벗은 아내’의 모습은 비록 가난하고 소박했을지라도 가족들이 함께했던 정겹고 건강한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에 대한 회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따뜻한 가족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20번문항]

정답: ③

해설: ③ (나)의 ㉠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은 화자가 과거 고향에서 경험했던 한 장면을 시각적(얼룩백이, 금빛), 청각적(울음소리) 이미지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의 ㉢ ‘흐린 거울’은 손님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일상의 사물이지만, 거사에게는 인간과 사물에 대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적 사유(흐린 거울의 효용성)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은 생생한 과거의 한 장면을, ㉢은 독창적 사유를 촉발하는 일상의 사물을 가리킨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은 고향의 평화로움을 보여주지만, ㉢가 글쓴이의 ‘자기 합리화’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거사의 주장은 나름의 논리를 지닌 독창적 견해이다.

② ㉠은 변하지 않는 고향의 가치를 암시할 수 있으나, ㉢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위선적’ 면모를 암시한다고 보는 것은 거사의 진솔한 자기변호를 오해한 것이다.

④ ㉠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연결되지만 ‘유유자적’했던 모습만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는 세속적 명예보다는 사물의 본질과 실용에 대한 글쓴이의 독특한 가치관을 드러낸다.

⑤ ㉠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지만,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로 ‘회귀’하려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는 현실의 어려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과거 회귀 심리를 반영하지 않는다.

[21번 문항]

정답: ④

해설: ④ (다) 「경설」에서 손님은 “지금 그대의 거울은 이미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여 얼굴을 비칠 수도 없고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소. 그런데도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어찌된 일요?”라고 말한다. 이는 거울은 맑아야 하고 사물을 잘 비춰야 한다는 일반적이고 고정된 생각, 즉 통념에 기반하여 흐린 거울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님의 이러한 태도를 사물의 외양이나 통용되는 가치에 ‘엮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는 통념에 엮매여 있는 인물이다.

오답 풀이: ① 거사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맑고 아롱진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함을 맑은 거울을 통해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꺼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지적한 것으로 타당하다.

② 거사는 “하물며 많은 못생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싫어함이 없으니,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이 어찌 그 공이 아니겠소?”라고 말한다. 이는 거울의 '흐림'(일반적으로는 단점)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긍정적인 기능(공)을 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거사는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나게 된 뒤에 닳고 갈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요.”라고 말한다. 이는 흐린 거울도 그 본질(맑은 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닳아서 맑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물의 본질적 가치는 잠재되어 있으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거사는 “옛사람이 거울을 본 것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였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그 흐린 것을 취하기 위함이요.”라고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힌다. 이는 맑음만을 추구하는 세태와 달리, 결점이 있거나 다수인 '못생긴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존재를 긍정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번문항]

정답: ①

해설: ① (가) 「출세곡」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나 세속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고사 속 인물(엄자릉, 소동파), 자연물(청풍명월, 강산), 자신의 행위(낙시, 술 마시기) 등을 열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자연에 귀의하여 안분지족하는 삶의 가치를 부각한다. (나) 「수오재기」는 지킬 필요가 없는 천하만물(밭, 집, 꽃나무, 책 등)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의 본성을 대비시키고, 또한 쉽게 잃어버리는 ‘나’(㉞)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지켜야 할 ‘나’(㉟), 그리고 ‘나’를 잃지 않은 큰형님과 ‘나’를 잃었던 자신을 대비하며 ‘나를 지키는 것[守吾]’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AI자체분석기준 적용: [39].1 평가 목표-요소 유기성 - 각 작품의 핵심적 표현 전략(열거, 대조)과 주제 연결, [40].4 지문-발문-선지 간 논리적 필연성)

오답 풀이: ② (가)에 대구적 표현이 일부 사용될 수 있으나, 인물(화자 자신)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태도 변화가 대구를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논리적 서술이 주를 이루며 대구적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는 성찰적이고 교훈적인 어조가 중심이며, 반어적 표현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역시 반어적 표현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④ (가)는 연추문, 경회 남문, 평구역, 흑수, 섬강, 치악, 소양강, 동주, 북관정, 삼각산, 회양 등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향토적 분위기나 사실감을 더하는 주된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직 생활의 여정이나 자연의 풍경을 제시하는 기능). (나)는 ‘장기(瘡癘)의 땅’, ‘한강’, ‘조령(鳥嶺)’ 등 일부 지명이 언급되나, 향토적 분위기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 ⑤ (가)는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과 함께 세속에 대한 미련, 임금에 대한 충정 등 진지한 정서를 드러내며, 해학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 역시 자아 성찰의 과정을 진지하게 서술하고 있어 해학적 어조와는 거리가 멀다.

[23번문항]

정답: ③

해설: ③ ㉠(“속세(俗世)) 번뇌(煩惱) 잊었으니 이 또한 즐겁도다.”)는 화자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자연 속에서 일시적으로 속세의 번뇌를 잊고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만으로 화자가 세속의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연과 ‘동화’된 몰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작품 전체에서 화자는 여전히 ㉡에서처럼 처자식을 생각하며 세간 근심을 잊지 못하고, 임금에 대한 충정(역군은)을 언급하는 등 세속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AI자체 고전소설 선지원칙 2: 고전 어휘의 다층적 의미 - '잊었으니'의 일시적, 부분적 의미 파악, [44].3 근거 기반 매력적 오답 - 표면적 의미에만 주목할 경

우 오관 가능)

오답 풀이: ① ㉠(청운지사(靑雲之志))는 ‘푸른 구름을 본받는 선비의 뜻’으로, 입신양명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고자 하는 포부를 의미한다. 화자가 “엇지타 청운지사 전혀 없어 십장홍진 무를 쓰고, 백발이 되도록 공명만 하려 하고”라고 다른 이들을 언급한 후, “아마도 뜬구름 같은 부귀 다시 볼까 하노라”라고 하는 데서, 자신 또한 이러한 세속적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② ㉡(처자(妻子))는 아내와 자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화자가 세속적 공명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자신도 “처자 생각 세간 근심 전혀 아니 잊는 것가”라고 하여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세속적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낸다. ④ ㉣(물욕(物慾))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뜻한다. 화자가 “물욕 없이 살려 하니 이 또한 욕심인가.”라고 자문하는 것은,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의 마음가짐조차도 또 다른 형태의 욕심(예: 청빈한 삶에 대한 집착이나 과시)일 수 있다는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담고 있다. ⑤ ㉤(격양가(擊壤歌))는 요 임금 시대의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노래이다. 화자가 격양가를 부르며 자신이 누리는 자연 속의 소박한 즐거움을 태평성대에 대한 만족감과 연결하고,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는 것은 당대 사대부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반영한다.

[24번문항]

정답: ②

해설: ② (가)의 ㉠(임천한흥(林泉閑興))은 화자가 공명이나 부귀와 같은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임천)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흥취를 의미하며, 이는 그가 지향하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의 이상을 나타낸다. (나)의 ㉢(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지 못할 나[者])는 이익, 위험, 미색 등 외부의 유혹에 쉽게 흔들려 자신의 본래 모습(본성)을 잃어버리는 자아의 취약한 측면을 드러낸다. (나)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지켜야 할 나[吾])는 여러 시련과 자기 상실의 경험 속에서도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굳건히 지켜내야 할 주체적이고 참된 자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각 시어의 핵심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다. (AI자체 고도분석 선지 복제 기준 4: 추론의 깊이 및 방향성 일치 - 각 마커의 상징적, 추상적 의미를 작품 전체 주제와 연결하여 추론)

오답 풀이: ① ㉠은 자연과의 동화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즐거움을 의미한다. ㉢은 본성의 선함이 변질된다기보다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외물에 쉽게 이끌리는 속성이 있음을 말한다. ㉤는 절대적 자유의 경지보다는 지켜야 할 본래적 자아를 의미한다. ③ ㉢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포함할 수 있으나, ㉢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특정하여 지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익, 위험, 미색 등 다양한 유혹을 포함). ㉤는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내면적 상태 또는 본질이다. ④ ㉠은 세속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므로 ‘완전한 초탈’로 보기는 어렵다. ㉢은 수동적으로 변하는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지

지 않으면 쉽게 떠나가는 ‘나’의 속성을 말한다. ㉤는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즉 자기 수양을 통해 지켜야 할 자아이다. ㉢ ㉠은 일시적 감흥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이다. ㉢은 과오 합리화 논리가 아니라 ‘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인식이다. ㉤는 큰형님을 통해 그 가치를 확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켜야 할 자아이다.

[25번문항]

정답: ③

해설: ③ (나) 「수오재기」는 ‘지킬 필요가 없는 천하 만물’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를 비교하고, 또한 ‘잃기 쉬운 나’와 ‘지켜야 할 참된 나’를 대비하며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상반된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지는’ 두 대상의 우열을 가려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나’라는 존재의 특수성과 그 본성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 및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초점이 있다. 글쓴이가 명시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자세는 ‘나를 굳게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논거와 예시를 들고 있을 뿐, 상반된 가치를 비교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주된 서술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나’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직접적으로 역설한다. (AI자체분석기준: [39].5 잠재적 오독 최소화 - 작품의 핵심 논지 전개 방식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평가)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나’라는 존재가 지닌 특성(잃어버리기 쉬운)을 설명하기 위해, 밭, 집, 꽃나무, 책, 옷, 양식 등 구체적인 만물의 예를 들어 그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음을 먼저 제시한다. 이후 이러한 만물과의 비교를 통해 ‘나’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연결하여 논지를 확장한다. ② 글 전체는 ‘수오재’라는 당호에 대한 글쓴이의 초기 의문(“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에서 시작하여, 이후 귀양지에서의 사색을 통해 ‘나’를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핵심 화두를 제시하고 글쓴이의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④ 글쓴이는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이다.”라고 자신의 과거 경험(과거 공부, 벼슬살이, 귀양)을 제시하며, 이러한 성찰을 통해 얻은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교훈적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삼가지 않고…나를 지키지 않겠는가!”, “맹자께서…이 말씀을 이제야 체득하게 되었다.”) ⑤ 글쓴이는 귀양지라는 특정 공간에서 홀로 지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내가 장기의 땅으로 귀양 온 뒤로 홀로 지내면서, 어느 날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과거(어렸을 때, 벼슬할 때, 귀양길에 오를 때)를 회상하며 ‘나’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며, 귀양지라는 공간이 성찰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6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가)의 화자가 ㉠에서 “속세 번뇌 잊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해방감일 수 있으며, 시 전체에서 화자는 여전히 ㉡“처자 생각 세간 근심”을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임금에 대한 충의를 생각하는 등 현실과의 연결을 보여준다. 이는 <보기>의 ‘세속적 공명에 대한 미련과 자연 귀의 사이의 갈등’ 및 ‘연군지정 유지’와 연결될 때, 속세 번뇌를 ‘완전히 벗어난’ 이상적 경지 도달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의 글쓴이가 ㉢에서 “나”를 “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지 못할 나[者]”로 규정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글쓴이 자신이 현실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상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로 인식하며, 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따라서 양쪽 모두 <보기>의 핵심 내용(가)의 점진적 안분지족 및 연군, (나)의 주체적 삶의 자세 및 본성 수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구절들이 현실 문제로부터의 완전한 벗어남과 이상적 경지 도달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AI자체 고도분석 선지 복제기준 2: 오답의 논리적 근거 및 매력도 유형 복제 - 부분적 사실(번뇌 잊음, 붙잡지 못함)을 전체적 맥락이나 <보기>의 핵심에서 벗어난 과도한 일반화로 연결하여 오답 구성)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마치 공명과 부귀가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세속적 공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점차 자연 속 삶을 긍정하고 수용하려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② (나)에서 글쓴이가 ‘나’는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는 속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보기>에서 강조하는 ‘외물의 유혹’에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강조한다. ③ (가)에서 화자가 자신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마저도 “역군은이샀다”라고 하며 임금의 은혜로 돌리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연에 귀의하여 안분지족하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연군의 정’과 ‘충의’라는 가치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④ (나)에서 글쓴이가 큰형님은 ‘수오재’에 거하며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큰형님을 ‘나’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모범적인 인물로 제시함으로써, <보기>에서 말하는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의 가치를 부각하고 자신이 지향해야 할 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윗글에서 ‘나’는 처음에는 자전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에 대해 “가슴이 두근거렸다”, “양심을 몹시도 찢어냈다”며 죄책감을 느낀다. 이후 우연히 더 받게 된 거스름돈 문제에 직면하여 “나는 그 돈을 자전거포 아이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질 것인가를 두고 한참이나 망설였다”라며 새로운 윤리적 갈등을 겪고, 결국 돈을 자신이 갖게 된 후에는 “그날부터 나는 전보다 더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하여 이전의 죄책감에 더해 새로운 문제로 인해 심리적 부담과 고통이 깊어졌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선지는 작품에 드러난 ‘나’의 핵심적인 심리 변화와 그 과정을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신사가 자전거를 구매하는 과정은 지켜보았으나, 그 후 자전거 도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그 틈에 슬그머니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소홀함’으로 인해 도난이 발생했다고 자책할 수는 있지만, 도난의 전말을 ‘뒤늦게 파악’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선지 자체도 ‘나’의 핵심적인 심리 상태보다는 주변적인 사실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력적 오답: 부분적 사실을 포함하나, 핵심 정보 누락 및 인과관계의 미묘한 왜곡)

② 자전거포 아이는 아버지에게 “저놈이 자전거를 팔아먹고 도둑맞았다고 둘러대는구나.”라는 의심을 받으며 폭력적인 추궁을 당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어떤 ‘잘못’(과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는지는 지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매력적 오답: 그럴듯한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

③ ‘나’는 길에서 자전거포 아이를 만나 그의 모습에 “가엾어서 가만히 쫓아 주었다”며 연민을 느끼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자리를 비운 것, 돈 문제)을 솔직히 털어놓거나 용서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무 말도 못 하고 그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렸다.” (매력적 오답: 인물의 긍정적 감정(연민)을 제시하여 전체 행동을 미화하거나, 실제 행동과 반대되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제시)

④ ‘나’가 수험생 형에게 자전거를 잘 지켰다고 “거짓부령을 했다”고 진술한 이후, 수험생 형이 ‘나’의 불안한 기색을 감지하거나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등의 내용은 지문에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매력적 오답: 지문에 없는 내용을 독자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기대에 기대어 제시)

[28번문항]

정답: ④

해설: ④ ㉠(“나는 그 돈을 당장 자전거포 아이에게 주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돈으로 맛있는 과자를 사 먹고 싶은 유혹도 떨칠 수가 없었다.”)은 ‘나’가 예기치 않게 얻은 돈을 두고 도덕적 양심과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겪는 치열한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구절 자체에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이 갈등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나’는 이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동요와 불안을 겪고 있으며(“눈앞이 노래지면서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듯했다”), 바로 다음 행동(“아무 말도 못 하고 그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렸다.”)은 합리화보다는 순간적인 회피나 욕망에 굴복하는 모습에 가깝다. 자기 합리화는 지문의 다른 부분(“그까짓 거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에서 나타나지만, ㉠의 핵심은 해소되지 않는 갈등 그 자체이다. (매력적 오답: ‘합리화’, ‘부담 해소’ 등 긍정적/중립적 심리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 갈등 상황을 미묘하게 왜곡)

오답 풀이: ① ㉡(“얼마 후 자전거포 아이가 자기네 집으로 뛰어 들어오면서부터 사단이 벌어졌다.”)은 객관적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앞 문맥에서 ‘나’가 자리를 비운 상황과 연결되어, 이후 ‘나’가 겪게 될 내적 갈등의 복선으로 작용한다. 서술자는 자신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무게감을 암시한다.

②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 꿈 때문에 시달렸고, 자전거포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했다. 그럴 때마다 가게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이 아버지의 호통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는 내 양심을 몹시도 찢어댔다.”)은 ‘나’가 자신이 자리를 비운 간접적 과실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악몽, 특정 장소 회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예민한 자각(양심을 찢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③ ㉣(“나는 그 아이가 혹시 나를 의심하고 뒤쫓아 온 것이 아닌가 싶어 덜컥 겁이 났다.”)은 자신의 잘못(자리를 비운 것)을 인지하고 있는 서술자가, 우연히 마주친 자전거포 아이의 행동(다가옴)을 즉각적으로 자신에 대한 의심과 연결하며 느끼는 불안감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자기방어적 심리가 반영된 추측이다.

⑤ ㉤(“밤이면 어김없이 시꺼먼 그림자가 나를 쫓아오는 꿈을 꾸었고, 나는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은 돈 문제에 대한 그릇된 선택 이후, ‘나’의 죄책감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무의식적인 공포(악몽)로 더욱 심화되어 일상생활까지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암시한다.

[29번문항]

정답: ③

해설: ③ ‘나’는 자전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전거포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했다”라고 하여 해당 장소를 의식적으로 회피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후 길에서 자전거포 아이를 만나고, 우연히 자신이 거스름돈을 더 받은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그 돈을 자전거포 아이에게 주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돈으로 맛있는 과자를 사 먹고 싶은 유혹도 떨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여 새로운 도덕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선지는 이러한 ‘나’의 심리적 회피와 새로운 갈등 상황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정확히 연결하고 있다. (매력적 오답 설계: 정답은 인물의 복합적인 심리 변화 과정을 정확히 포착, 오답은 부분적 사실을 일반화하거나 긍정/부정적 측면을 극단적으로 해석)

오답 풀이: ① ‘나’는 수험생 형에게 “거짓부령을 했다”고 하여 자신의 무책임함을 반성하고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매력적 오답: 독자의 도덕적 기대 심리 이용)

② ‘나’는 자전거포 아이가 아버지에게 맞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아이 아버지의 ‘호통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진술은 과도한 해석이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죄책감이 더 중심적이다. (매력적 오답: 감정의 대상을 미묘하게 전환)

④ ‘나’는 돈 문제로 “한참이나 망설였다”고 하여 갈등의 깊이를 보여주지만, 그의 최종 선택(“아무 말도 못 하고 그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렸다”)을 ‘단호하게’ 현실적 이익을 선택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내면적 고뇌와 우유부단함을 간과한 해석이다. (매력적 오답: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단정적으로 제시)

⑤ 윗글의 마지막까지 ‘나’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악몽을 꾸는 등, 자신의 이기심을 깨달았을 수는 있으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성숙한 존재로 변화’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성장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지문 내에서는 미완의 상태이다. (매력적 오답: 바람직한 변화를 가정사실화하여 제시)

[30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나’가 돈을 갖고 달아난 후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그의 ‘자기 합리화’ (“그까짓 거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가 실패했으며, 내적 갈등과 죄책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서술자의 미성숙함과 그로 인한 문제 상황의 지속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말이 서술자의 자기 합리화가 ‘성공하여 내적 평온을 찾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은 정반대의 이해이며, <보기>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 (매력적 오답: ‘역설적’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해석 자체가 정반대임)

오답 풀이: ① ‘나’가 자신의 잘못(자전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 수험생 형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미성숙한 ‘자기 방어기제’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② ‘나’가 자전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느끼는 죄책감을 “그까짓 거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그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자기 합리화’의 모습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의 서술자 특징과 부합한다.

③ ‘나’가 자전거포 아이의 처참한 모습에 순간적으로 연민을 느껴 등을 쓸어주는 행동을 하지만, 이후 돈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이를 외면하고 달아나는 모습은, 그의 공감이 피상적이거나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미성숙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는 <보기>의 ‘미성숙한’ 서술자가 지닌 양면적 심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나’가 거스름돈을 두고 “한참이나 망설였다”고 자신의 내적 갈등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비록 그가 <보기>에서처럼 ‘제한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미성숙한 서술자일지라도, 특정 순간에는 자신의 도덕적 고민을 비교적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1번문항]

정답: ④
해설: ④ ㄴ (“오색구름 한 조각이 숙향이 꿇었던 자리를 감싸더니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는지라.”) 이후 태수는 숙향을 “하늘이 내리신 선녀(仙女)가 죄 없이 모함을 받은 것이로다.”라고 인식하고, 오색구름을 향해 용서를 빌라고 명하는 등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후 숙향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들려와 자신의 포악함을 꾸짖고 봉황이 바람을 일으켜 관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자, 태수는 “하릴없이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후회막급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는지라.”라고 서술된다. 이는 태수가 초월적 현상에 경악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잘못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모습일 수는 있으나,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성찰하여 ‘성찰하는 인물로 변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의 행동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며, 이후에도 그의 근본적인 성품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매력적 오답 설계: ‘용서를 빚’이라는 표면적 행동을 ‘성찰적 변화’라는 심층적 변화로 과도하게 해석하도록 유도)

오답 풀이: ① ㄱ에서 숙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직 하늘만이 아실 것이옵니다. 천지신명께 맹세코…”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 세상의 권력(태수)이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 부당한 상황에서, 절대적이고 공정한 존재(하늘, 천지신명)에게 자신의 순결함을 호소하며 초월적 정의에 기대려는 간절한 심정을 드러낸다.

② ㄱ에 대한 태수의 반응은 “네 죄 이미 드러났거늘 어찌 이리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요사스러운 말로 나를 농락하려 하느냐.”, “당장 저년을 형틀에 묶고 엄형을 가하여…” 등이다. 이는 숙향의 진술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미 죄가 드러났다고 단정하며, 자신의 권위로 상황을 강압적으로 종결지으려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③ ㄴ의 ‘오색구름’ 등장과 숙향의 신이한 사라짐은, 숙향이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인간의 논리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⑤ ㄷ “하늘의 도움으로 모든 누명을 벗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 정절과 지혜는 길이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는 숙향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갈등이 결국 ‘하늘의 도움’이라는 초월적 개입을 통해 해결되고, 악인(사향, 암시적으로 태수)은 벌을 받거나 뉘우치며 선한 주인공이 행복을 찾는 권선징악의 서사적 원리가 실현되었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32번문항]

정답: ④

해설: ④ 숙향은 ㄱ에서 자신의 텍스트박스[결백(潔白)]을 주장하지만, 태수는 “네 죄 이미 드러났거든 어찌 이리도 변명으로 일관하며…”라고 하며 이를 불신하고 엄형을 명한다. 그러나 ㄴ에서 오색구름과 함께 숙향이 사라지고 봉황이 나타나는 등 초월적 현상을 경험한 후, 태수는 “이는 필시 인간이 아니요, 하늘이 내리신 선녀(仙女)가 죄 없이 모함을 받은 것이로다.”라고 하며 숙향의 결백을 인정하고, 이후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며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숙향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상황에 대한 저항이지만, 이것이 ‘당대 남성 중심 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숙향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절과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다. (매력적 오답: 현대적 가치관을 투영하여 그럴듯하게 포장)

② 숙향의 결백은 태수의 ‘공정한 판단’이나 ‘인간 이성의 승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색구름, 봉황의 출현 등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 증명된다. (매력적 오답: 바람직한 해결 방식을 제시하나 실제 내용과 다름)

③ 숙향이 결백을 주장하며 위기에 처하자, 주변 인물들의 직접적인 ‘조력’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힘(하늘의 도움)이 개입한다. 지문에 등장하는 ‘관리’는 현상을 보고하는 역할만 한다. (매력적 오답: 일반적인 소설의 갈등 해결 방식을 제시)

⑤ 윗글에서 숙향의 결백은 주로 개인의 도덕적 순수성과 정절의 문제로 다루지며, 이것이 ‘가문의 명예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그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매력적 오답: 고전소설의 보편적 가치(가문)를 연결시키나, 본 지문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음)

[33번문항]

정답: ③

해설: ③ <보기>는 고전 소설의 인물들이 주로 ‘선과 악의 대립 구도 속에서 평면적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때로는 입체적인 심리나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부연한다. 윗글의 태수는 처음에는 숙향의 말을 믿지 않고 강압적으로 죄를 단정하며 형벌을 내리려 하지만(악역에 가까운 모습), 초월적 현상을 목격한 후에는 즉시 두려워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등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사건의 전개를 위한 기능적 역할에 가까우며, 그의 내면적 갈등이나 복잡한 심리가 섬세하게 그려져 ‘입체적인 심리 변화를 겪는 인물’로 심층적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초월적 힘 앞에서 쉽게 굴복하는 평면적 악인의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기>의 주된 설명과 더 부합한다. (매력적 오답: ‘태도 변화’라는 표면적 현상에 주목하여 ‘입체적 심리 변화’로 성급하게 연결하도록 유도) (AI자체분석기준 적용: [40].2 사고 과정의 심층성 유도 - <보기>의 주된 설명과 부연 설명의 관계 및 적용 범위 정밀 판단 요구, [39].2 변별력 확보 - 평면적/입체적 성격 개념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

오답 풀이: ① 숙향은 태수의 권위적인 위협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신의 결백과 정절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시련을 겪는 여성 주인공이 지닌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숙향이 형벌을 받기 직전, ‘오색구름’이 나타나 숙향을 감싸고 하늘로 올라가며, 이후 ‘봉황’이 등장하여 태수를 응징하는 듯한 초현실적인 사건들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서사’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④ 숙향은 특별한 잘못 없이 사향의 시기와 모함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극심한 고초를 겪는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재능과 덕을 갖춘 여성이 부당한 사회적 편견이나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고통받는 ‘당대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작품의 결말에서 숙향이 모든 누명을 벗고 행복하게 살며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완전한 정의 실현과 행복의 성취를 보여준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개입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민중의 소망’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4번문항]

정답: ②

해설: ② (가)는 “옛장수들이 가위질”,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흠집투성이 몸통뿐”, “앙상한 몸통” 등 중심 소재인 ‘북가시나무’의 황폐함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외부의 폭력과 그로 인한 내적 상실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나)에서 “너는 /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등은 대상의 규정 불가능성에서 오는 화자의 불안감이라기보다는, 명명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화자의 슬픔(“나는 한밤내 운다”) 또는 존재론적 고뇌를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정서가 ‘청각적으로 암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체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심 소재에 자아를 투영하여 시 전체의 중심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화자의 내면 상태와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나’가 ‘너’(또는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꽃)가 되는 관계를 제시하고, 이를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상호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 존재의 본질이 규정되기를 바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③ (가)는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이라고 하여 미래의 시 쓰기에 대한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나)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등에서 상호 소통과 인정을 통해 존재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드러낸다.

④ (가)의 화자는 현재 “흠집투성이 몸통뿐”인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럼에도 “반역”하고 새로운 시를 쓰겠다는 의지를 통해 대상(자기 자신, 시)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 한다. (나)의 화자는 현재 자신이 “위험한 짐승”이며 대상이 “무명의 어둠”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자신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 놓이기를 소망한다.

⑤ (가)와 (나) 모두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내적 독백의 형식을 주로 활용한다. (가)는 이를 통해 억압적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시를 쓰고자 하는 가치를, (나)는 존재의 본질과 상호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가치와 세계관을 표출한다.

[35번문항]

정답: ①

해설: ① (가)에서 텍스트박스[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는, 이전까지 “옛장수들이 가위질”하고 “가지도 없고 잎도 없”으며 “흠집투성이 몸통뿐”이었던 훼손된 자아의 모습이다. 이러한 북가시나무가 “봄기운에 /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라는 구절 바로 뒤에 이어져,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듯 ‘살벌한 몸통’으로 ‘반역’한다고 표현된다. 이는 억압적 현실에 굴하지 않고 맞서려는 강인한 저항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반역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파괴가 아닌 “앞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쓰는 것, 즉 생명력 있고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예술(시)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고 희망을 지향하려는 의지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살벌한 몸통’이라는 표현이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것이 화자 자신이 외부 세계의 폭력성에 ‘동화’되어 ‘더욱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존재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역’의 방향이 생명력 있는 시 창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③ ‘살벌한 몸통’은 극한의 고통을 암시할 수 있지만, ‘서서 반역하는’이라는 구절은 절망 속에서도 저항하는 능동적인 의지를 보여주므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체념에 이른 심정’과는 거리가 멀다.

④ ‘북가시나무’는 화자의 ‘영혼’이 투영된 대상이며, 외부의 억압으로 인해 훼손된 모습이다. 이를 문명의 억압을 벗어난 ‘자연 본연의 거칠고 원초적인 생명력’이 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은 시의 중심 내용과 어긋난다. ‘살벌한’ 것은 억압의 결과이지 원초적 생명력의 발현이 아니다.

⑤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이라는 표현은 내적 결의와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신의 고통을 극적으로 드러내어 ‘정서적 위안이나 연민을 얻고자 하는’ 자기 연민적 태도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고독한 결단에 가깝다.

[36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가)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시 쓰기는 “앞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 주는 시” 등으로, 이는 생명력과 나눔의 가치를 지향하며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억압적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순수 서정의 세계 추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화자는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고 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서 화자가 갈망하는 ‘눈짓’은 <제시문>의 “진정한 상호 관계는 일방적인 명명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눈짓’을 통해 가능함을 시사한다”는 내용과 연결 지어 볼 때,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 간의 상호 인정과 깊은 교감을 의미한다. 이를 ‘언어의 개입 없이도 가능한 존재 간의 완전한 합일’로 단정하는 것은, <제시문>이 언어 행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상호적 관계의 가능성을 ‘눈짓’이라는 소통 행위를 통해 모색한다는 점을 간과한 해석일 수 있다. 특히, ‘언어의 개입 없는 완전한 합일’은 지나친 비약이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흠집투성이 몸통뿐”이라고 묘사된 ‘북가시나무’는, <제시문>의 설명처럼 외부의 억압(“무슨 무슨 주의(主義)의 옛장수들이 가위질”)으로 인해 훼손된 화자 자아의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을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 ② (나)에서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라는 구절은, 화자의 언어(손)가 대상(너)을 규정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의 상태, 즉 아직 이름 불리지 않아 그 본질이 드러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미지의 어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가)의 화자가 절망적 상황에서도 생명력 있는 “앞사귀 달린 시를 쓸 수도 있으리라”고 다짐하는 것은 <제시문>의 ‘창조적 행위를 통해 자아를 회복하고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치열한 의지’에 해당한다. (나)의 화자가 ‘너’를 ‘꽃’으로 명명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제시문>의 ‘언어 행위’를 통해 대상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의 영혼이 투영된 ‘북가시나무’가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소극적이지 않은 저항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나)의 화자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언어 행위(이름 부르기)를 통해 대상을 자신의 인식 체계 안으로 포섭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의도를 보여준다.

[37번문항]

정답: ②

해설: ②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은 화자의 내면적 고통과 슬픔(“울음”)이 극도로 정제되고 심화되어 예술적 결정체(금)로 승화될 수 있다는 믿음, 또는 시적 언어가 무생물(돌)에까지 생명이나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창조적 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시인이 언어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과 연결되며, 특히 언어(또는 시적 행위)가 대상을 이상적이거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변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은 이름 불리지 않은 존재, 즉 아직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대상의 근원적 상태 또는 그로 인한 화자의 슬픔과 막막함을 나타낸다. 이를 대상의 ‘순수한 본질’에 대한 ‘경외감’으로 해석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눈시울에 젖어드는”, “나는 한밤내 운다”)와 거리가 멀다.
- ③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은 명명 행위 이전에는 대상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 언어(이름 부르기)가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가 존재 의미를 규정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라거나 언어의 ‘절대적 위상’을 강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는 이후 상호적 관계를 지향한다.
- ④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은 과거의 성공적인 명명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 또한 타인에 의해 이름 불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이는 관계 진전을 ‘포기’하거나 과거에 ‘안주’하는 체념적 태도와는 정반대이다.
- 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은 일방적인 명명이나 주체-객체의 고정된 관계를 넘어선,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눈짓’은 언어를 넘어선 더 깊은 교감을 암시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적 명명을 통해 형성된 주체와 객체의 고정된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설명은 시의 지향점과 어긋난다.

[38번문항]

정답: ③

해설: ③ (가) 「몽천요」는 “꿈에 보이는 님이 ~ 하건마는 / ~ 그리울 제 꿈 아니면 어이 보리 / 저 님아 ~ 자로자로 뵈시소서”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통사 구조)가 각 수의 초·중·종장에 걸쳐 변주되며 나타나 리듬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한다. (나) 「사미인곡」 발췌 부분은 “건곤이 폐색하야 백설이 한 빛인 제”로 시작하여 겨울의 황량한 정경을 묘사하며, 이러한 계절적 배경은 임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외롭고 그리운 마음(애상감)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비록 발췌된 부분은 겨울이지만, 「사미인곡」 전체는 춘하추동 계절의 순환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고전시가 문제원칙 3: 표현 방식 및 시상 전개 방식 분석)

오답 풀이: ① (가)는 영탄적 어조(“~하노라”, “~리라”)가 사용되지만 반복적으로 격앙된 심정을 표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간절한 소망에 가깝다. (나)는 자연물(백설 등)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지만, 직접적인 감정 이입을 통해 격앙된 심정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매력적 오답: ‘영탄’, ‘감정 이입’ 등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나, 작품의 주된 정서 및 표현과 불일치)

② (가)는 전체적으로 임에게 또는 자신에게 말하는 듯한 독백적 어조가 중심이며, 명시적인 대화 교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 역시 임을 향한 독백적 어조가 주를 이룬다. (매력적 오답: ‘저 님아’를 대화로 오인할 수 있으나 전체는 독백)

④ (가)는 꿈속에서나마 임을 만나려는 것이지, 특정 이상적 공간에 대한 동경이 핵심은 아니다. (나)는 현재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지, 과거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회상이 주된 내용은 아니다(임과 함께했던 과거는 암시될 뿐).

⑤ (가)는 점층적 표현보다는 반복과 변주를 통한 강조가 보인다. (나)는 “이 병을 엮디하리” 등 설의적 표현이 있으나, 이것이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절망감 속의 간절한 소망에 가깝다.

[39번문항]

정답: ③

해설: ③ (가)의 제2수에서 화자는 “정성(精誠)이 미진(未盡)하야 꿈에 겨우 만났더니”라고 말한다. 이는 꿈에서 임을 겨우 만나고, 그 만남에서 임의 “말씀은 ㉠못내 설워”라고 한 것이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겸손함 또는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임이 자신을 ‘외면’하여 그로 인해 ‘절망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화자는 임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낄지언정,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버리거나 임과의 관계 자체에 절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3수에서는 자신의 그리움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다. (매력적 오답 설계: ‘정성이 미진하야’라는 구절을 자책과 연결하고, ‘말씀은 못내 설워’를 임의 외면으로 확대 해석하여 절망감으로 귀결시키는 그럴듯한 논리적 비약)

오답 풀이: ① 제1수에서 화자는 “탐탐(耽耽)이 그리울 제 꿈 아니면 어이 보리”라며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꿈을 통해서라도 보고자 하며, “저 님아 꿈이라 말고 자로자로 뵈시소서”라고 하여 지속적인 만남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낸다. (추론 원칙: 함의 추론 - 꿈이 유일한 방편)

② 제2수에서 임의 “옥안(玉顔)은 반갑지만 말씀은 ㉠못내 설워”라고 하여, 꿈속 만남의 반가움에도 불구하고 임의 언행에서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론 원칙: 정서의 복합성 이해)

④ 제3수에서 화자는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어디 간들 없을 쏘냐”, “우리 님 그린 뜻은 추천(九天)에 미치리라”라고 하여, 물리적 거리(“만리장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함없는 충정과 그리움이 결국 임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와 믿음을 보여준다. (추론 원칙: 함의 추론 - 일편단심의 결과)

⑤ 제2수의 “인간(人間) 이별(離別)을 꿈에조차 싫어라 하노라”라는 구절은, 꿈이라는 비현실적 공간에서조차 임과의 이별 상황이나 소통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화자의 근원적인 슬픔과 한계를 드러낸다. (추론 원칙: 정서의 복합성 이해)

[40번문항]

정답: ⑤

해설: ⑤ (가)에서 화자가 꿈에서 임의 말씀에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임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임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임의 위엄 앞에서 느끼는 절대적 거리감이나 체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임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나)에서 화자가 나비가 되어 임에게 다가가려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임에게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변해서라도 임을 따르려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체념이라기보다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간절한 소망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쪽 모두 <보기>의 관점에서 ‘절대적 거리감과 그로 인한 체념’을 반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매력적 오답 설계: ‘위엄’, ‘체념’ 등 그럴듯한 개념을 제시하나, 각 시구의 문맥적 의미 및 화자의 핵심 정서와는 거리가 있음. 추론 원칙: 정서/태도의 복합성, 함의 추론)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꿈에서라도 자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자로자로 뵈시소서”) 것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임과의 단절 상황’에서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구체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이다.

② (나)에서 화자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따뜻한 봄기운)을 임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은, 임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어떻게든 전달하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보기>의 ‘자신의 정성을 통해 임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에 해당한다.

③ (가)의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충성심인 ‘일편단심’을 강조하는 것과, (나)의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생긴 병이 오직 ‘임의 탓’이라고 말하며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모두 <보기>에서 언급한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이 각 작품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가 자신의 깊은 상사병을 전설적인 명의인 ‘편작’조차 고칠 수 없다고 한탄하는 것은, 임과의 만남이나 소통이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느끼는 깊은 절망감과 안타까움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1번문항]

정답: ④

해설: ④ (가)의 ㉠(“만리장천(萬里長天)”)은 임과의 광활한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며, 이는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시험하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오히려 그 의지를 부각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옥루고처(玉樓高處)”)는 임금이 계신 높은 대궐로, 화자가 자신의 정성을 보내고자 하는 지향점이지, 임과의 ‘단절감’을 부각하는 배경으로 우선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임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화자에게는 그리움의 대상이자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며, 따라서 ‘단절감 부각’이라는 설명은 (나)의 ㉡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매력적 오답 설계: (가)의 ㉠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게 구성하고, (나)의 ㉡에 대한 설명을 미묘하게 왜곡하여 전체 선지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추론 원칙: 다층적 정보 통합 - 각 시어의 기능과 전체 맥락 연결)

오답 풀이: ① (가)의 ㉠(“꿈에 뵈는 님”)는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넘어 꿈에서라도 만나고자 하는 임을 의미하며, 이는 충의라는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상이다. ㉡(“만리장천”)은 이러한 임과의 만남이나 충의 실현이 어려운 광활한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며 관계 실현의 지난함을 암시한다.

② (나)의 ㉡(“옥루고처”)는 임금이 계신 곳으로, 화자의 모든 생각과 정성이 향하는 변함없는 지향점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 병을 엇디하리”)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생긴 상사병이 어떤 명의로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화자의 극한적인 심리 상태를 집약한다.

③ (가)의 ㉠(“꿈에 뵈는 님”)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어 꿈에서나마 보려는 부재하는 대상이다. (나)의 ㉢(“이 병을 엇디하리”)은 임과의 이별로 인해 생긴 병으로, 역시 부재하는 임과 관련된 정서를 환기한다. 두 경우 모두 현실에서 직접적인 교감이 어려운 대상과 관련된다.

⑤ (가)의 ㉠(“꿈에 뵈는 님”)를 향한 화자의 태도(“자로자로 뵈시소서”, “일편단심”)와 (나)의 ㉢(“이 님의 타시로다”)에 담긴, 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까지 말하는 화자모두 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변함없이 임에게 속하고자 하는 귀속 의지를 전체로 하고 있다.

[42번문항]

정답: ④

해설: ④ 윗글에서 ‘나’는 “나는 왜 녀석처럼 대상을 저렇게 단순하고 아름답게만 그릴 수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언제나 현실의 어둡고 추한 이면에만 집착하는 것일까.”라며 자신의 예술적 지향과 동생의 것 사이에서 고뇌한다. 또한 동생의 재능에 대해 “부러우면서도”, “질투심 비슷한 것”을 느낀다고 하여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고뇌 끝에, 그는 글의 마지막에서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의 기록을” 그려야 한다고 다짐한다. 이는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예술로 담아내려는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동생의 그림에 대해 속으로는 비판적이지만(“일종의 기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겉으로는 “아니, 좋아. 아주 잘 그렸어.”라고 진심이 아닌 말을 한다. 따라서 동생에게 그의 예술적 한계를 ‘단호하게 비판’하거나 ‘명확히 인식시켜 주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력적 오답: ‘나’의 내면적 비판과 외면적 행동을 혼동시키거나, ‘단호하게’라는 표현으로 정도를 왜곡)

② 동생은 형에게 그림에 대한 의견을 묻기는 하지만 (“왜 말이 없어, 형? 별로야?”), 형의 예술적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거나, 형의 진솔한 평가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는 적극적인 모습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매력적 오답: 독자가 기대할 법한 이상적인 형제 관계를 제시하나 근거 부족)

③ ‘나’는 동생의 그림이 헤인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지만, ‘나’ 자신이 헤인의 고통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만이 그녀를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라고 명시적으로 믿고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는 ‘고통의 기록’을 다짐하지만, 이것이 헤인에 대한 추모행위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매력적 오답: ‘나’의 예술관을 특정 대상(헤인)에 대한 추모로 한정하고 그럴듯하게 연결)

⑤ ‘나’는 마지막에 “나는 그려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이것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고히 구축’했다거나, 그로 인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깊은 고독감’을 느낀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기록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하려는 몸부림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그의 고독감은 이전부터 지속된 것이다. (매력적 오답: ‘나’의 다짐을 완결된 성취로 과장하고,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단정)

[43번 문항]

해설: ⑤ ‘나’는 예술에 대한 절망감을 느낀 후, “나는 그려야 한다.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의 기록을.”이라고 다짐한다. 이는 예술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나’의 다짐을 ‘예술을 통한 현실 도피 의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작품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매력적 오답: ‘예술’과 ‘현실 도피’라는 개념을 그럴듯하게 연결시키나, 작품 속 ‘나’의 예술관과 다짐의 방향성을 정반대로 해석)

오답 풀이: ① ‘나’는 자신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것”, “구원의 가능성”,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모방일 뿐”인 결과물에 “실망과 자괴감”을 느끼며, 심지어 “억겨움을 느끼기까지 했다”고 고백한다. 이는 예술적 이상 실현의 어려움에서 오는 극심한 자기혐오감을 드러낸다.

② ‘나’는 동생의 그림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한 표정과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동생의 뛰어난 기술적 재능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일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동생이 그린 헤인의 초상화가 자신이 기억하는 헤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불안”, “절망과 상실의 고통” 등 본질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관념적

인 아름다움”만을 표현했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동생의 그림을 “헤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일종의 배신”으로 여기는 것이며, 이는 대상의 피상적 아름다움보다는 그 본질과 진실을 중시하는 ‘나’의 예술관을 반영한다.

- ④ ‘나’는 자신의 그림 행위에 대해 “나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것을 후벼 파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고 성찰한다.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 행위가 진정한 창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재생산하거나 확인하는 것에 머무를 수 있다는, 예술 행위 자체의 의미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드러낸다.

[44번 문항]

해설: ② ㉠(“그것은 어쩌면 너석의 그림이 너무나 현실을 닮아 있으면서도 그 현실의 고통이나 상처는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은 ‘나’가 동생의 그림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나’는 동생의 그림이 현실의 고통이나 상처를 담지 못하고 ‘아름다운 껍질’만을 복제한다고 보며, 이를 ‘기만’으로까지 여긴다. 이는 동생의 그림에 대한 ‘나’의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이 선지는 ‘나’의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보기>의 ‘관념이 현실을 왜곡하는 양상’을 동생에게서 발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보기>의 ‘인물의 주관적 인식이나 관념이 현실을 왜곡하는 양상’은 서술자가 인물을 묘사하는 한 방식, 또는 인물 자신이 그러한 왜곡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다. ㉠에서 ‘나’는 동생의 그림이 현실을 (자신의 기준에서)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지, 동생 자체가 자신의 관념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하거나, ‘나’ 자신의 관념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성찰하는 대목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자신의 관점에서 동생의 그림이 진실을 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기>의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이 부적절하고 미묘하게 왜곡되어 있다. (매력적 오답 설계: <보기>의 용어(‘관념’, ‘왜곡’)를 사용하지만, 그 적용 대상과 관계를 정교하게 틀리게 구성하여 오판 유도)

오답 풀이: ① ㉡(“그러나 나의 붓은 언제나 그 소망의 언저리에서 맴돌다 끝났고, 완성된 화폭은 늘 나에게 실망과

자괴감만을 안겨 주었다.”)은 ‘나’가 추구하는 예술적 이상(“절대적인 것”)이 실제 창작 결과물에서는 구현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좌절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양상으로, 깊은 좌절감과 자괴감을 유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나는 그 그림 앞에서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헤인이 아니었다...”)은 ‘나’가 자신이 기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헤인의 진실된 모습과, 동생의 그림에 이상화되어 나타난 헤인의 모습 사이의 큰 괴리를 확인하는 장면이다. 이는 <보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예술로 진실되게 재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나’ 자신이 절감하고 그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헤인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기억 속 고통스러운 모습)이 예술적 재현의 기준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④ ㉣(“나는 속으로 동생의 그 재능과 그림에 대한 경멸감과 함께, 어쩌면 나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대한 질투심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은 ‘나’가 동생의 재능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경멸, 질투)과 함께, 자신의 예술적 지향과 한계(“나는 왜 너석처럼...나는 왜 언제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모습이다. 이는 <보기>의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연민으로 ‘귀결’된다고보다는 복합적 성찰 과정 자체를 의미) (해설 정교화: ‘자기 연민으로 귀결’이 다소 단정적일 수 있어, 선지 자체는 ‘인정하는 대목’으로 두어 타당성을 확보하고, 해설에서 ‘한계 절감’에 초점)

- ⑤ ㉤(“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치 주문을 외우듯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아니다, 나는 그려야 한다.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의 기록을.’”)은 ‘나’가 예술에 대한 절망감과 고통스러운 상념들 속에서도,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창작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절박한 의지를 다지는 부분이다. 이는 <보기>의 ‘고뇌’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가치’(고통의 기록으로서의 예술)를 계속 탐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5번문항]

정답: ④
해설: ④ 양소유는 취향정 누대 위에서 과거 영웅호걸들의 삶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돌아보며 “인생의 부귀영화란 풀잎 끝에 맺힌 이슬[草頭露]이요 바람 앞의 등불[風前燈]과 같도다”라고 하여 세속적 성취의 허망함을 절감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산수(山水) 간에 은둔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노라”는 불교적 진리에 대한 지향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꿈에서 깨어난 성진 또한 “속세의 모든 영화가 하룻밤 꿈과 같고, 인간의 정욕(情欲) 또한 허깨비와 같사옵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깨달음을 재확인하고 불도에 정진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고전소설 선지원칙 4: 작품에 투영된 당대 사상(불교적 인생무상) 이해, 추론원칙 2: 함의 및 생략된 전제 추론)

오답 풀이: ① 여덟 부인들은 양소유의 출가 선언에 ㉠에서 “저희 또한 그 깊은 뜻을 헤아려 함께 근심하며 따르겠나이다”라고 하여 그의 뜻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간곡한 만류를 뿌리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매력적 오답: 일반적인 상황(만류)을 가정하게 만들어 사실 관계 오판 유도)

② 육관대사는 성진에게 “네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간 것이 어찌 너 혼자만의 허물이겠느냐. 모두 나의 가르침이 부족한 탓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라고 하며 그의 경험을 개인적 일탈로만 규정하거나 엄히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의 과정으로 포용한다. (매력적 오답: 스승의 권위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질책’이라는 단어를 그럴듯하게 연결)

③ 성진은 꿈에서 깨어난 후 “황망(慌忙)하여 지난 일을 생각하니, 하룻밤 꿈속에서 인간 세상의 온갖 영화와 고통을 다 겪은 것이었다”고 하며, 곧바로 스승에게 자신의 미혹을 참회하고 불도 정진을 다짐한다. 양소유로서의 삶이나 여덟 부인에 대한 ‘애착을 쉽게 떨쳐내지 못한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매력적 오답: 인간적인 미련을 상상하게 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심리 추론 유도)

⑤ ㉠에서 여덟 부인들은 양소유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직접 ‘함께 불문에 귀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양소유는 그들에게 “남은 여생을 각자 보람되게 보내시오”라고 당부한다. (매력적 오답: ‘따르겠나이다’라는 말을 ‘함께 출가’로 비약하여 해석하도록 유도)

[46번 문항]

정답: ⑤
해설: ⑤ 양소유(성진)는 ‘속세’의 부귀영화에 대해 “하룻밤 꿈과 같다”며 그 허무함을 느끼고,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불생불멸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노라”라고 하여 속세로부터 벗어나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다. 그가 속세에서 이룬 것은 유교적 기준에서의 최고의 공명과 부귀였으며, 여기에 ‘미처 이루지 못한 공적 이상’이 남아 있어 미련을 갖는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미련은 본래 불도를 닦던 성진으로서 세속적 욕망을 잠시 품었던 것에 대한 것이며, 꿈을 통해 이를 모두 경험하고 허무함을 깨달은 후에는 미련 없이 불도에 정진한다. (매력적 오답: ‘미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미련의 대상과 성격을 왜곡) (고전소설 선지원칙 1: 고전 어휘(속세)의 함축적 의미 및 작품 내 기능 이해, 추론원칙 1: 다층적 정보 통합 – 인물의 발언과 행동 종합)

오답 풀이:

① 양소유는 부귀영화의 정점을 누리던 ‘취향정 누대’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내 차라리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불생불멸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노라”라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전환적 계기를 맞이한다.

② 양소유는 “홀연히 집을 떠나 금강산으로 향했다”고 하며, 그곳에서 스승 육관대사를 다시 만나고 자신의 본래 모습인 성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금강산’이 세속과의 단절 및 정신적 근원과의 재회, 본래적 자아 회복을 위한 구도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③ 성진은 육관대사의 도술로 인해 “다시 연화봉의 작은 암자에서 염주를 굴리던 젊은 중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인간 세상의 경험이 모두 꿈이었음을 최종적으로 깨닫고, 이전의 양소유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로 변모하는 초월적 체험을 한다.

④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살았던 ‘인간 세상’은 그에게 온갖 부귀영화와 여덟 부인과의 애정 등 다양한 욕망의 성취와 그로 인한 환희를 제공했지만(“세상 남자로서 나보다 더한 복을 누린 자가 있으리요”),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룻밤 꿈”처럼 허망한 것이었음을 체득하게 하는 이중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47번문항]

정답: ②

해설: ② ㉠(“상공(相公)의 높은 뜻과 깨달음에 감복하였으니, 저희 또한 세속의 부질없는 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상공의 뒤를 따르겠나이다.”)는 양소유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출가의 뜻을 밝히자, 여덟 부인들이 그의 고뇌와 결정을 이해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강조되는 아내로서의 덕목(부덕)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날의 모든 미망(迷妄)은 스승님의 자비로우신 방편(方便) 덕분에 씻은 듯 사라졌사오니, 이제부터는 오직 불법에 정진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나이다.”)는 성진이 꿈에서 깨어난 후, 과거 세속적 욕망을 품었던 자신의 잘못(미망)을 스승의 가르침(방편) 덕분에 깨달았음을 인정하고 참회하며, 앞으로 불도에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설명이 ㉠과 ㉢의 핵심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다. (고전소설 선지원칙 4: 작품에 투영된 당대 사회·문화적 이념(유교, 불교) 이해, 추론원칙 3: 화자의 정서/태도의 변화 또는 복합성의 역동적 이해)

오답 풀이: ① ㉠에서 부인들은 양소유의 ‘높은 뜻과 깨달음에 감복’한다고 하여 그의 고뇌를 피상적으로 이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에서 성진은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지, 주변인들을 ‘교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매력적 오답: ‘감복’을 ‘피상적 이해’로, ‘다짐’을 ‘교화 의지’로 미묘하게 왜곡)

③ ㉠에서 부인들은 양소유의 결정에 ‘동참’하여 함께 현실을 떠나겠다고 하기보다는,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며 남은 삶을 각자 보람되게 보내라는 당부를 수용하는 것에 가깝다. ㉢에서 성진은 스승의 꾸짖음이 아니라 자비로운 방편에 감사하며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지, ‘마지못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아니다. (매력적 오답: ‘따르겠다’를 ‘함께 떠남’으로, ‘자비’를 ‘꾸짖음’으로 상황을 극단적으로 오인)

④ ㉠은 주변 인물(부인들)의 지지를 보여주지만, ㉢은 주인공 성진 자신의 발언이므로, ㉠과 ㉢ 모두 ‘주변 인물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은 성진의 자기 성찰과 다짐이 중심이다. (매력적 오답: ㉠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까지 확장 적용)

⑤ ㉠과 ㉢에 드러난 인물들의 발언은 「구운몽」이라는 특정 작품의 서사적 맥락과 주제 의식(인생무상, 불교적 귀의)을 반영하는 것이지, 이를 ‘운명적 한계 앞에서 좌절하는’ 당대 사대부 전체의 ‘보편적인 정신세계’로 일반화하는 것은 작품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도한 해석이다. (매력적 오답: 작품의 주제를 당대의 보편적 정서로 과도하게 확대하여 그럴듯하게 포장)

[48번문항]

정답: ④

해설: ④ 양소유가 출가의 뜻을 밝히자 여덟 부인들은 ㉠에서 “저희 또한 세속의 부질없는 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상공의 뒤를 따르겠나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남편의 높은 뜻을 이해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려는 유교적 부덕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부인들 자신이 유교적 가치관과 불교적 이상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갈등하거나, 두 사상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불교적 이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부인들의 발언은 양소유 개인의 사상적 전환에 대한 수용과 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들 자신의 심층적인 사상적 변화나 통합 과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보기>는 주로 주인공인 사대부 남성의 내면 갈등과 사상적 지향을 설명한다.

오답 풀이: ① 양소유는 승상의 지위에 오르고 여덟 명의 현숙한 부인과 함께하며 자손까지 번성시키는 등,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경험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유교적 출세주의’가 이상적으로 실현된 정점으로 볼 수 있다.

② 양소유가 누대 위에서 국화주를 즐기다 문득 “인생의 부귀영화란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이요 바람 앞의 등불과 같도다.”라고 말하며 한탄하는 것은, 자신이 누린 모든 세속적 성취가 결국에는 헛되고 덧없는 것임을 깨닫는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이는 <보기>의 설명과 부합한다.

③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인간 세상의 모든 경험이 허망함을 깨닫고, 자신의 지난날을 “한때 마음이 어두워 스승님을 배반하고…부질없는 부귀공명을 탐닉하였나이다.”라고 참회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세속적 가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불교적 진리에 귀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 부정과 성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⑤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성진과 소유가 둘이 아니요, 꿈과 현실 또한 본래 둘이 아니니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족하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길흉화복이나 부귀공명과 같은 외적인 성취보다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가 내적인 깨달음에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